

“마음이 허공같고 다 탄 재 같아야”

무위(無爲)의 실상문(實相門)

배후가 물었다.
 “어떤 것이 ‘속제(世諦)’입니까?”
 “갈등을 설해서 무엇 하였는가?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 언설을 빌려서 문답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루지(無漏智)라 한다.

보통 ‘일체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곧 ‘무념무상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아직도 ‘하라’가 뒤에 붙어 있다. ‘돈오’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본래 무념무상한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 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대승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최상승의 수레를 타고 마음대로 거닐면서, 근거 맞춰서 인연을 배울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속제’란 세속적인 이치를 말한다. 배후는 세간의 상대적인 도리에서 자주 질문을 하고, 황벽스님은 출세간의 ‘진제(眞諦)’의 절대적인 입장에서 연표를 짚아 풀어주어 대답하고 있다. 아직 꼭지가 떨어지지 않은 배후가 아무리 답답한 질문을 하여도, 황벽스님은 꼭대스럽게 대답해주고 있는 모습이 대선지식의 고구정명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갈등’이란 언어, 문자에 얽매어 이치를 논하는 것을 말하며, ‘무루지’란 번뇌가 세지 않는 지혜다.

네가 매일의 행주좌와(行住坐臥)와 일체 말하는 데 있어 유위법(有爲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박이는 것 모두에 번뇌가 없을 것이다.

본래면목을 깨달으면, ‘말하고, 하지 않고’에 관계없이 더러움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못하면, 더러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 짓고 분별할 수밖에 없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어지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번번이 걸리는 내 모습은 걸릴 것 없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등등의 모든 질문은 유위법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지금 말법시대로 기술어지면서, 선도(禪道)를 배우는 대부분 사람들은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자기 마음을 여실 수 있었는가? 마음이 허공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며, 또한 다 탄 재와 꺼진 불처럼 되어야 한다.

깨달은 힘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분별은 점점 사라져간다. 뭔가 자주 하려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고, 하되 하는 바 없이 지낼 수 있는 인연을 스스로 살피야 한다. 일단 근본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시간 보내야 한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24)



범어사 주지

“어떤 것이 속제입니까?”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언성 빌려 문답하겠는가

일체 마음 없는 것이 무루지

‘무루지’ 번뇌 세지 않는 지혜

아라한·벽지불만 되어도

염라대왕이 붙을 수 없다

모든 법 여의기만 하면

비추려 하지 않아도

두루 비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늑 보리’다



그림·박구원

그래야만 도에 상응할 분(分)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지 않다면, 뒷날 끝내 염라대왕에게 얽힌 문책을 당할 것이다.

흔적을 남기고 다니니까, 염라대왕에게 들키는 것이다. 아라한이나 벽지불만 되어도, ‘의생신(意生身)’ 즉 뜻대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정도만 되어도, 염라대왕이 붙을 수가 없다. 하물며 그림자가 다 사라져서, 부처와 돌이 아닌 자리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림자가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라면, 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중생계에 떠돌아다니는 영가가 되어서 귀신놀음을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다만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여의기만 하면, 마음이 마치 허공의 태양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광명을 발하여,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두루 비추게 된다. 이 어찌 ‘힘 덜리는 일(省力事)’이 아니겠느냐?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인데, 매달려서 일부터 없애려고 드는 것이 허물로 작용한다.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갖들이 머물 메가 없어서, 그 행은 모든 부처님의 행이 되며 곧 ‘어문 바 없고 그 마음을 낸다. [應無所住而生其心.]’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너의 청정법신이며 ‘아늑보리’다.

아늑다라삼막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확철대

오 하는 것이다. 그때는 다시 어느 것에도 속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부지런히 고행 수도하며 풀옷을 입고 나무껍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조리 샅된 수행이며, 정작 천마(天魔)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행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수없는 난행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도 깨치지 못하면 헛일이다. 무상정등정각에 대한 올바른 안목이 열려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지공(志公)이 말씀하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 가운데 구해지겠는가? 설령 그렇게 해서 삼현(三賢), 사과(四果), 십지만심(十地滿心)의 지위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역시 범성(凡聖)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고 하였다.

범부가 성인의 지위를 얻고 거기서 더 큰 성인으로 나아가는 상대적인 모습은, 확철대오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망한 짓에 불과하다. ‘성인이 되라.’는 말과 ‘성인도 허망하다.’는 말을 동시에 들었을 때, 공부가 분명하지 못한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공부에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더 깊고 얇은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그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니 그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관무량수경〉

정도의 정원

언젠가 유홍준 교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다른 것은 다 있었으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불국사에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청운교, 백운교 앞에 연못이 있다면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

옛날에 연못을 만들었다면, 불국사는 그 자체가 지상의 극락정토로 기획된 것이라는 의미가 되리라.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지 알 수 없지만, 불교미술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작지 않은 깨달음이었다.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원의 형태로, 지상에 극락을 구현하려 한 사례는 일본에도 많이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지(宇治)의 평등원(平等院)이 아닐까 싶다. 불황당이라는 법당은, 그 이름처럼 불황의 날개를 좌우로 펼친 구조로 되어 있다.

불황당 앞에 연못이 있다. 극락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당연히 불황당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그 주위의 하늘에는 비천(飛天) 등 수많은 공양자(供養者)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한다.

평등원의 정원과는 같은 정원을 ‘정도정원’이라 말한다. 물은 없지만 모래를 파도라 하고, 돌은 섬이라 하여 선정(禪定)의 세계를 형상화한 ‘선종정원’과는 또 다른 양식이다. 선종정원은 간소함이 아름다움의 원천이지만, 정도정원은 화려한 기교가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그 옛날 귀족들은 내세에 극락에 왕생하기 위하여, 극락세계를 정원 속에 구현해 놓고서 극락왕생을 염원하였다. 마치 스스로 극락세계의 한 일원인 것같은 느낌을 가져보고자 한 것이리라.

나=아미타불

관상(觀想), 이라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이미지’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극락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아미타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염(念)’하는 것은, 사실 인도에서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한 관상염불을 설하는 대승경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무량수경〉이다. 부처님께서는 위제의 부인에게 아미타불을 관상하라 말씀하신다. “모든 부처님 여래는 진리의 몸이니, 모든 중생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

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서른 두가지의 큰 특징(三十二相)이며 여든가지의 작은 특징(八十種好)이니, 그러한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마음이 곧 부처이다.”

자, 어떤가? 여기 관상 속에 선(禪)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흔히 우리는 염불과 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염불 속에 이미 선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관상 자체가 또 하나의 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무량수경〉에서는 염불의 의미를 관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선과 염불의 간극을 단박에 뛰어넘고 만다. 부처님



그림·박구원

을 염하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요, 부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이미지는 예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정도의 염불이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이 필요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정도신앙은 예술을 낳았다. 정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조각이나 회화가 필요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다만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에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했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아쉬운 바가 없지 않았다. 관상염불에서, 그저 ‘나=아미타불’이라 소리 내어서 부르는 구칭(口稱)염불로 염불의 흐름이 바뀐 데에는 이러한 이유 역시 있었다.

물론 그렇게 염불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심작불 시심사불’의 원리마저 바뀔 수는 없다. ‘나=아미타불’이라며, 소리 내어 님을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아미타불이 존재한다. 그 가 곧 아미타불이 마음 속에 들어가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수계법회 법요식 품계고시 및 비구 수계식

안내 말씀

이번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품계고시 및 수계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계를 기다리신 중도 분들과, 이번 행사에 뜻있는 중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삼화사

- | | | |
|-----|-----|----------|
| 갈 마 | 아사리 | 법철스님 |
| 교 수 | 아사리 | 일공스님 |
| 정 레 | 대화상 | 자강스님 |
| 유 나 | | 정수스님 |
| 인 레 | | 명승, 범등스님 |
| 사회자 | | 범등스님 |

❖ 장소 및 일시

- 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석불사 (경남 유형문화재 제122호)
- 일 : 불기 2557년 5월 19일 (양력 6월 27일) 목요일
- 시 : 9시 30분

주최: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053)965-8215, 010-9020-8215
 임시 대행 : 범등, 수봉 합장

전자식 2종문 3중정보 특한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대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정보불전함

서원불교 핫 043-647-2378, 011-467-147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정맥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삼보는 중단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삼보를 마크의 뜻

1. 불국정도 불림, 승 삼보와 자연으로는 하늘, 사람, 땅,을 도안화 하였습니다.
2. 종렬 삼보는 한뜻, 일심정성, 소구소원,을 뜻하며 즉 끝없는 기도와 수련으로 우리 하나됨을 의미 합니다.
3. 세상천지도 내가 중심이되는세계, 그러나 앞서지않고 사회의 중심에 서서 균형, 조화, 예의, 회생, 봉사, 사랑, 실천을 뜻 합니다.
4. 나를 중심으로 매년, 매일, 매월, 낮과밤 변화의 회전을 뜻하며 생명력의 연속성을 뜻합니다.

법민단체등록필
 고유번호: 204-82-76850

종무원인

禪大韓佛敎 曹溪宗

중단 가입문의 (02) 959-1825